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

이지영*

1. 서론
2. 중국소설 수용에 나타난 취향의 변화
3. 상품화된 소설의 향유 여부
4. 소설 향유와 창작의 관계
5. 결론

1. 서론

그동안 ‘18세기’ ‘서울’은 역사 및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18세기 조선은 정치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었으며, 바로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경화사족은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키워드로 인식되었다.

‘경화사족’이란 말은 흔히 ‘대대로 서울에 주로 거주하던 사족 집단’을 지칭하는 ‘경화세족’¹⁾과 혼용되지만, 경화사족은 경화세족보다 포괄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대부’를 뜻한다. 당시 사대부로서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거나 관직에 진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족층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후기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대를 이어 서울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경화세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또 지방에 근거를 둔 사족이라고 해도 관직에 진

* 아주대학교 강사

1) 강명관은 경화세족을 “서울을 주 생활공간으로 하는 서울에 세거하는 양반가로서 청요직의 획득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그 가능성이 사회적 통념으로 공인된 가문”으로 규정한 바 있다. (『조선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조선후기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279면.)

출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예도 적지 않았으며, 관직에 있지 않아도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사대부들도 있었다. 이들은 경화세족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문화적으로 서울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²⁾

그렇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18세기 서울이라는 공간이 지방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일까?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중국서적과 중국물품의 영향이다. 강명관은 18세기 사상과 문학, 예술에서 나타난 변화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서적과 물품으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보았다.³⁾ 지방 사대부의 경우 수입된 서적의 영향력이 미미했을 것이기에 중국서적과 물품의 영향은 서울과 지방 간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서울의 도시화와 상업화 양상이다.⁴⁾ 서울의 도시화는 이전과는 달리 문화를 상품으로 향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소설의 수입과 소설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 양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18세기에 들어온 중국소설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세책이 경화사족층 여성의 소설 향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소설의 향유와 창작의 관계를 중심으로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사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소설 수용에 나타난 취향의 변화

1

우리나라의 소설사는 중국소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이는 중국소설이 수입되어 우리나라에도 그와 유사한 소설이 창작되었다는

2) 유봉학은 서울 생활을 통해서 학문 사상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학풍과 생활방식을 지닌 상층을 모두 경화사족으로 보면서 좁은 의미의 경화거족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가 설정한 경화사족의 개념에는 서울의 중서층과 평민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극빈한 처지에 있는 잔반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114-137면.) 이 글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화사족을 사용하되, 신분적으로 다른 중인과 서얼은 포함하지 않겠다.

3) 강명관, 앞 논문.

4) 서울의 상업화 양상에 대해서는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태학사, 2007)를 참조할 수 있다.

식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당대 사대부들이 사용하던 문자는 한자였기에 중국소설을 타국의 소설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당시 사대부들이 한문 혹은 백화로 읽은 대부분의 소설은 중국 소설이었다. 한문으로 문자생활을 하던 사대부들이 중국의 소설을 읽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소설이 얼마나 수입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소설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긴요한 일이다.

중국소설책의 수입은 중국에서 대중적 출판업이 성행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가정·만력연간 이후에 희곡류와 소설류의 출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⁵⁾ 바로 이 무렵부터 조선에는 중국소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까지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는 소설은 모두 16종으로, 필기류와 문언소설의 비중이 높다.⁶⁾ 그리고 17세기에는 보다 다양한 연의소설과 재자가인 소설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 이렇게 해서 18세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소설은 확인되는 것만 31종이다. 이 중에서 『전등신화』, 『화영집』 등은 조선에서 간행되기도 하였으며, <오료전비기>와 <삼국지연의>, <수호전>, <초한연의>는 이미 한글로도 번역되어 읽혔음이 확인된다.

이는 확인된 것만 헤아린 것으로, 18세기 이전까지 수입된 중국소설은 실제로 보다 많았을 것이다. 허균이 중국에서 대량의 서적을 구매하였다는 기록이나 유만주의 선조 兪絳(1510-1570)이 명나라 사행길에 많은 책을 사가지고 왔다는 기록 등을 보면,⁸⁾ 16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서적을 구입한 사례가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정길수와 윤세순은 17세기에 이미 중

5) 오오키 야스시,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 2007, 44-48면.

6) 필기류를 포함할 때 『설원』, 『태평광기』, <정충록>, 『전등신화』, 『전등여화』, 『효빈집』, 『화영집』, 『여정집』, 『유예록』, <교홍기>, <서상기>, <서유기>, <오료전비기>, <삼국지통속연의>, <초한연의> 등이 확인된다. 류탁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윤세순,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유입과 향유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25, 민족문화사학회, 2004 참조.

7) 17세기까지 새로 수입된 소설로는 <수당연의>, <서한연의>, <동한연의>, <제위연의>, <잔당오대연의>, <북송연의>, <당송연의>, <수호전>, <봉신연의>, <옥교리>, 『경세통언』, <포공연의>, 희곡 <형차기>, 『종리호로』, 『염이편』 등이 확인된다. 류탁일, 앞 책과 윤세순, 「17세기, 소설류의 유행양상」,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참조.

8) 중국서적 수입 양상에 대해서는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청 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4, 25-26면 참조.

국에서 다양한 중국소설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았다⁹⁾. 그러나 이는 정황상 추정할 것일 뿐 17세기 중국소설의 대량유입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중국소설의 대량 유입은 17세기 말이나 18세 초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북경의 도서시장이었던 유리창은 18세기에 이르러서 번성하였으며,¹⁰⁾ 우리나라에 중국서적을 다수 소장한 장서가가 출현하는 시기는 18세기 이후이다.¹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소설의 유입은 18세기에 들어와서 급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중국소설의 현황은 윤덕희가 작성한 두 종의 소설목록과 사도세자가 작성한 『중국소설회모본』¹²⁾ 및 유만주의 『흙영』에 언급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¹³⁾ 이들 자료에서 언급된 중국소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학세월』	<소설경람자>	『중국소설회모본』	『흙영』
역사소설	三國志, 三國志演義, 開闢衍譯, 列國誌, 五代史, 殘唐五代史演義, 南宋衍義, 東漢記, 東漢演義, 北宋衍義, 北宋演義	三國衍義, 開闢衍譯, 列國志, 五代史, 殘唐五代史演義, 南宋衍義, 東漢記, 西漢記, 西漢演義, 隋唐志, 北宋衍義, 北宋演義, 後三國志, 隋煬帝艷史, 韓魏小史	三國志, 開闢演義, 列國志, 殘唐演義, 南宋衍義, 東漢演義, 西漢演義, 隋唐演義, 北宋演義, 東晉演義, 西晉演義, 焦史演義, 涿鹿演義	昆明演義, 石珠演義, 三國志演義, 開闢衍義

9)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윤세순, 앞 논문.

10) 벤저민 엘먼, 양희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326-327면.

11) 강명관은 중국서적의 대량이 가능하게 된 조건으로 유리창 서점가의 번성을 들었다.(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257면.)

12) 『중국소설회모본』이 사도세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최근 정병설에 의해 밝혀졌다.(정병설,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중국소설회모본』」, 『문헌과 해석』 47, 2009 여름, 126-135면.)

13) 최자경, 「유만주의 소설관」, 연세대 석사논문, 2000; 김영진, 앞 논문 참조.

영웅소설	水滸志, 後水滸志, 大明英烈傳 ^{皇明英烈傳}	忠義水滸志, 後水滸傳, 仙眞逸史 ^{禪眞逸史} , 大明英烈傳 ^{皇明英烈傳} , 精忠傳 ^{岳武穆王精忠傳} , 楊六郎傳	水滸志, 後水滸志, 後水滸傳, 禪眞逸史, 皇明英烈傳, 續英烈傳, 禪眞後史, 盛唐演義	精忠錄, 水滸外書, 水滸後傳, 水滸傳 (김성탄)
신마소설	孫龐衍義, 西遊記, 東遊記, 西洋記, 女仙外史	孫龐衍義, 封神記 ^{封神演義} , 西遊記, 東遊記, 西洋記, 後西遊記, 平妖傳, 女仙外史	孫龐衍義, 西周演義, 西遊記, 東遊記, 西洋記, 後西遊記	西遊記, 西洋記
화본소설	警世通言, 今古奇觀, 西湖佳話, 貪歡報	歡喜逸家, 覺世名言, 警世通言, 醒世恒言, 今古奇觀, 五色石, 西湖佳話, 貪歡報, 人中畫, 拍案驚奇, 留人眼, 八洞天, 跨天虹, 鴛鴦影, 錦疑團, 西湖二集, 一片情, 十二峯, 再求鳳, 一枕奇, 雙劍雪, 金粉惜, 快士傳	醒世恒言, 今古奇觀, 五色石, 西湖佳話, 貪歡報, 人中畫, 拍案驚奇, 留人眼, 型世言	今古奇觀, 覺世名言, 西湖佳話, 人中畫, 一片情, 豆棚閒話, 雲仙嘯
인정소설	1> 영정소설: 杏花天, 濃情快事, 玉樓春, 肉蒲團, 浪史, 戀情人 2> 재자가인소설 金翠翹傳, 賽花鈴, 定情人, 五鳳吟, 畫圖緣, 驚夢啼, 醒風流, 十二峰	醒世奇緣 1> 영정소설: 杏花天, 濃情快事, 昭陽醜史 ^{好陽醜史} , 金瓶梅, 痴婆子傳, 玉樓春, 肉蒲團, 弁而釵, 浪史, 戀情人, 巫夢緣 2> 재자가인소설 玉嬌梨, 引鳳簫, 好逑傳, 玉支磯 ^{玉支磯} , 春風面 ^{春風眼} , 巧聯珠, 六才子傳, 春柳鶯, 金翠翹傳, 蝴蝶媒, 平山冷烟 ^{平山冷燕} , 飛花艷想, 催曉夢, 吳	1> 영정소설 杏花天, 昭陽趣史, 金瓶梅, 玉樓春, 肉蒲團, 戀情人, 巫夢緣, 弁而釵, 鬧花叢, 艷情快史, 燈月緣, 艷史, 白抄, 何潤傳, 陶情百趣, 桃興圖書 2> 재자가인소설 玉巧利 ^{玉嬌梨} , 引鳳簫, 好逑傳, 玉支磯, 春風眼, 巧聯珠, 四才子書 ^{平山冷燕} , 春柳鶯, 王翠翹傳, 鳳簫媒, 破閑談, 騁聘傳	杏花天, 肉蒲團, 金瓶梅, 燈月緣, 桃花影, 新鐫濃情小部 ^{濃情快史} , 梅玉傳奇, 快心編, 錦香亭, 催曉夢, 合錦迴文傳

		江雪, 兩交婚傳, 廻文傳, 賽花鈴, 錦香亭, 鳳凰池, 定情人, 歸蓮夢, 五鳳吟, 畫圖緣, 驚夢啼, 醒風流, 情夢柝, 夢月樓, 麟兒報, 十二峰		
문언소설	商傳, 國色天香, 山海經	商傳, 國色天香, 古列女傳, 太平廣記, 列仙傳, 虞初志 ^{虞初新志} , 山海經, 文苑查橋 ^{文苑植橋} , 剪燈新話, 剪燈餘話, 艷異篇, 一夕話, 花陣綺言, 情史, 西湖志	剪燈叢話, 剪燈新話, 文苑查橋, 艷異篇, 列仙傳, 山中一夕話, 仙媛傳, 富公傳, 迪吉錄	國色天香, 虞初新志, 山海經, 文苑植橋, 剪燈新話, 西湖遊覽志餘, 西湖遊覽志, 聊齋志異, 情史, 子不語, 穆天子傳
공안소설		龍圖神櫛 ^{龍圖公案}	包公演義	
희곡	西廂記, 四夢記, 續情燈	西廂記, 西樓記, 四夢記, 續情燈	西廂記	牡丹亭, 紅拂記, 鳳儀亭, 玉合記, 西廂記(이탁오, 김성탄), 桃花扇
기타		鑑戒書, 養正圖說 ^{養正圖解} , 釋氏源流, 寂光經, 感應圖說	女範, 士範, 養正圖解, 感應篇, 無冤錄, 太原志, 聖經直解, 七極	
한국한문소설	南征記, 紅白花傳	王慶龍傳, 周生傳, 南征記, 紅白花傳		
미학인서목	奇團圓	笑裡笑, 天下異紀, 蘭咳集, 奇團圓, 千古奇聞, 人月圓, 遇奇緣, 杏紅衫, 河陽媲美		春苑記, 玉殿生春, 覺夢雷

윤덕희(1685-1766)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후에는 해남과 서울을 이동하면서 살았다.¹⁴⁾ 『자학세월』은 달력을 이용한 일종의 낙서장으로, 윤덕희가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시기에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소설 2종을 포함하여 모두 46종의 소설 제목이 적혀 있는데, 재자가 인소설과 염정소설을 포함한 인정소설이 14종으로 가장 많고, 연의소설이 그 다음으로 많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정소설의 비중이다¹⁵⁾. 인정소설의 한 부류인 재자가인 소설은 18세기 초반 이전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1684년 『승정원일기』의 기사에 <옥교리>에 대한 언급이 있고¹⁶⁾, 김춘택이 <평산냉연>에 대해서 평하는 대목에서도¹⁷⁾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옥소 권섭의 어머니 용인 이씨가 필사한 소설 목록 중에 <의협호구전>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¹⁸⁾, 늦어도 용인 이씨가 사망한 1712년 이전에 이미 <호구전>의 번역본이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윤덕희의 목록 중에 있는 재자가인 소설 8종과 염정소설 6종은 18세기 이전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인정소설의 상당수는 특히 18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유입되지 않았나 한다.

윤덕희는 또한 필사본 문집인 『洩勃集』 권4에도 <小說經覽者>란 제목 하에 128종의 소설제목을 기록하고 있다.¹⁹⁾ 제목 밑에 “駱西今年七十八, 寫

14) 『자학세월』과 『수발집』의 내용 및 윤덕희의 생애에 대해서는 차미애, 「낙서 윤덕희의 회화 연구」, 홍익대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1 참조. 윤덕희가 해남에 거주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윤덕희를 경화사족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론에서 밝힌 대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문화적인 공간의 측면에서 경화사족을 정의한다면 윤덕희 역시 경화사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5) 18세기 소설목록에서 인정소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김경미도 지적한 바 있다. 김경미는 인정소설 중에서도 음사소설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18세기 성담론의 변화와 관련지은 바 있다.(김경미, 「음사소설의 수용과 19세기 한문소설의 변화」,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참조.)

16) “使差備譯官, 傳言於臣等, 求見玉嬌梨”(숙종 10년 12월 13일)

17) “小說, 無論廣記之雅麗, 西遊水滸之奇變宏博, 如平山冷燕, 又何等風致.”(『囚海錄』) 이하 문집자료는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제공 자료를 이용한다.

18)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편, 집문당, 1995, 322면.

19) 차미애, 앞 논문. 이 자료는 박재연이 차미애의 논문내용을 인용하여 소개함으로써 국문학계에 널리 알려졌다.(박재연, 「윤덕희의 소설경람자」, 『문헌과 해석』 19, 2002 여름.)

此小字試目”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윤덕희가 78세 되던 1762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윤덕희는 해남에 낙향해서 만년을 보내고 있었다. <소설경람자>에 적힌 128종의 소설제목은 『자학세월』에 있던 46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학세월』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나는 것은 화본소설과 인정소설, 문언소설류이다. 『자학세월』에 4종만 있던 화본소설이 모두 22종이나 들어있고, 『자학세월』에 14종이 적혀 있던 인정소설은 41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밖에 문언소설은 3종에서 14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정소설과 화본소설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부류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특히 윤덕희의 <소설경람자>는 사도세자가 작성한 『중국소설회모본』의 서문에 언급된 소설과 일치하는 항목이 많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²⁰⁾ 『중국소설회모본』은 사도세자가 화가 김덕성 등을 시켜서 모두 128쪽의 중국소설 삽화를 그린 것이다. 小敍에는 모두 83종의 중국소설이 언급되고 있는데, 언급된 13종의 연의소설 중에서 9종이 <소설경람자>와 일치하고 있으며, 영웅소설은 5종(총 8종), 신마소설류는 6종(총 6종) 화본소설 8종(총 9종), 염정소설 8종(총 16종), 재자가인소설 9종(총 12종), 문언소설 5종(총 9종), 희곡 1종(총 1종) 등이 일치하고 있다. 두 자료의 소설 목록이 유사한 데에는 『중국소설회모본』을 그린 도화서의 화가 김덕성과 화원의 監董이었던 윤덕희 간의 교유관계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소설회모본』과 <소설경람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 둘이 작성되던 1762년에 윤덕희는 해남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보다는 당시 조선에 수입되어 사대부 사이에 읽혔던 중국소설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 『중국소설회모본』에서는 염정소설과 재자가인소설을 포함한 인정소설류가 28종에 달하고 있는데, 다른 소설류는 <소설경람자>쪽이 더 많은데 염정소설만 <소설경람자>의 11종에 비해 5종이나 많다. 전체적으로는 윤덕희의 <소설경람자>와 비슷하게 인정소설의 비중

20) 『중국소설회모본』에 대해서는 박재연, 「완산 이씨 『중국소설회모본』에 대하여」, 『석현 정규복박사 조희기념논총』, 1996. 사도세자는 엄격히 따지자면 왕족이기에 경화사족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왕족과 경화사족은 신분적으로는 달라도 문화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할 수 있다.

이 높는데, 이는 1762년경 경화사족의 독서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인정소설의 증가는 유만주의 『흙영』에서도 확인된다. 유만주는 1775년에 서 1786년까지 쓴 일기 『흙영』에서 자신이 읽은 소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유만주가 읽었던 소설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문언소설 혹은 필기소설류이다.²¹⁾ 유만주가 읽었던 문언소설은 『중국소설회모본』의 5종보다는 많고 윤덕희 목록의 14종에 근접한다. 이를 제외하면 다음으로 인정소설의 비중이 높다. 인정소설의 총수는 윤덕희의 40종, 사도세자의 28종에 훨씬 못 미치지만, 전체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명정대 회곡은 5종으로 윤덕희의 경우보다도 많으며 윤덕희와 사도세자의 목록에는 없었던 것이 4종이나 된다.

반면, 유만주는 연의소설을 읽은 흔적은 그리 많이 남기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밝힌 것만 보면 연의소설류가 3종에 불과하다. 『흙영』을 좀 더 꼼꼼히 검토할 때, 유만주가 읽은 소설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1783년 6월 1일조에 <개벽연의>를 읽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²²⁾ 또 1786년 정월 16일조에는 소설에서 흔히 사실과 다르게 꾸며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²³⁾ 유만주가 실제로 읽었던 연의소설류가 지금껏 밝혀진 것보다는 많았을 듯하다. 그러나 몇몇 사실이 더 확인되더라도 전체 소설 중에서 연의소설의 비중이 낮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연의소설이 비중이 인정소설에 비해 낮다는 점은 윤덕희와 사도세자의 목록에서도 확인되는 바였다. 윤덕희의 경우만 보더라도, 1744년의 목록과 1762년의 목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이 바로 연의소설에 비해 인정소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연의소설의 경우 『자학세월』의 7종과 <소설경람자>의 12종 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들 목록의 절반 이상은 이미 18세기 이전 자료에서도 국내유입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정소설의 대부분은 18세기 이전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것들이다. 이로써 18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인정소설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윤덕희, 사도세자, 유만주의 예에서 인정소설이 전대에 비해 뚜

21) 김영진, 앞 논문, 29-33면.

22) “傳有夏固荒怪也。然比之開闢衍義先後天記，猶有摸捉”

23) “(…) 又言護上皇之臣，有李白杜甫，以雷海青爲雷萬春之兄，此自小說例套，鑿空架虛不嫌舛誤”

렸한 증가를 보이는 일차적인 이유는 당시 청나라에서 인정소설류의 간행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유만주는 인정소설에 대한 감상평을 유독 많이 남기고 있으며, 특히 이들 소설이 지니고 있는 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논평이 눈에 띈다. 이는 인정소설이 당시 사대부의 취향에 부합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정소설의 국내유입은 단지 인정소설 출판의 양적인 증가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기는 힘들 듯하다.

인정소설에 대한 당대 사대부의 취향은 김성탄 평점본 <수호전>과 <서상기>의 유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유만주의 『흙영』에는 김성탄 평점본 <수호전>과 <서상기>에 대한 서술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수호전>과 <서상기>는 이미 17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읽혔다. <수호전>의 경우 17세기 초 허균의 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허균은 “수호전은 곧 간사하고 교활하다(水許則姦騙機巧)”²⁴⁾라며 비판하였다. 그런데 유만주는 “(수호전을) 읽으면 문장가의 화법을 깨우칠 수 있다(讀之可以悟文章家話法)”²⁵⁾고 하였으며, “성격과 신분이 다른 각각의 인물을 갖가지로 표현했으니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했겠는가?(各有身分性格, 色色誦現, 非才子, 安得出此)”²⁶⁾라고 극찬을 하였다. 유만주 외에도 洪樂仁(1740-1770)은 『수호전』 독후시에서 “정강의 호걸들이 수풀로 돌아가니 성탄의 문장은 소설 중에 으뜸이라네(靖康傑俠歸萑藪, 聖歎文章冠稗家)”²⁷⁾라고 하였고, 이덕무는 김성탄을 비난하면서도 “그 말하는 억양이 교묘하여 사람의 마음을 잘 현혹시켰으니, 재주꾼은 재주꾼이다. 과연 施耐菴의 左丘明이요 法門의 宋江이라 이를 만하다”²⁸⁾고 하였다. 허균이 <수호전>의 서사에 대해 비판하였다면, 18세기 사대부들은 서술방식 및 문장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4) <西游錄跋>, 『梔所覆韻稿』.

25) 최자경, 앞 논문, 99면에서 재인용.

26) 최자경, 같은 논문, 77-78면에서 재인용.

27) 김영진, 앞 논문, 49면에서 재인용.

28) 『歲精惜譚』, 『국역청장관전서』.

이처럼 이덕무나, 홍낙인, 유만주 등이 <수호전>의 문장에 대해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은 허균과는 다른 판본으로 <수호전>을 읽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수호전>의 판본은 다양하며 판본에 따라 문장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가장 오래된 판본은 가정 연간에 郭勳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에 이탁오와 김성탄 등이 평점하여 간행한 것이 나왔다.²⁹⁾ 후대에 나온 김성탄 <수호전>은 100회와 120회로 전해지던 <수호전>의 후반부를 삭제하여 70회로 정리하면서 문장과 서사를 다듬고 인물의 캐릭터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비평을 통해서 소설이 아닌, 문장의 수업에 도움이 되는 독서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호전>에 대한 유만주의 반응은 바로 김성탄 평점본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 점은 김성탄 평점본 <서상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유만주는 <서상기>를 읽고 문장에 대해 감탄하는데, 이는 김성탄 평점본 이전의 반응과 다르다. 17세기 초에 이견은 <題西廂記>에서 <서상기>를 읽은 후에 남녀의 애절한 사랑에 대한 감상을 적은 바 있는데,³¹⁾ 이는 서사를 의식한 발언이다. 그런데 유만주는 서사보다는 표현과 묘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성탄이 비평한 <서상기>를 통해 문장 표현법 및 수사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의식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³²⁾ 예를 들어 유만주가 “서상기의 평해 중에서 ‘눈물이 콩처럼 떨어진다’는 녀 자는 형용이 절묘하다(西廂評解, 有‘淚落如豆’四字, 形容絕矣)”라고 한 대목에서 김성탄 비평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관화당이 엮은 문자는 다만 한 폭의 신기한 그림이다(貫華堂通篇文字, 只是一部神畫)”라고 한 것은 김성탄이 <서상기> 비평에서 “단 열한 자로 깊은 규방의 여자를 마치 그림처럼 묘사하였다(只十一字, 寫女兒深閨, 便如圖畫)”, “이른바 화가가 구름을 검

29) <수호전>에 대한 개략적 이해는 조관희, 「수호전인론」, 『중어중문학』 9, 1987을 참조하였고, 판본의 계통에 대해서는 이해순, 「수호전판본고」, 『중국학보』 14, 한국중국학회, 1973 참조.

30) <소설경답자>에 <충의수호전>의 제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윤덕희는 김성탄 <수호전>(70회본)이 아닌 100회본이나 120회본의 <수호전>을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읽은 <수호전>이 이탁오가 평점한 <수호전>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31) “誰遣紅娘傳密約, 迎風對月結深情, 何人爲著西廂事, 千載如今發不平”

32) 김성탄이 비평한 평점본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숙자, 「<第六才子書西廂記>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의 논의가 상세하다. 아래의 김성탄 비평 구절은 이 논문에서 재인용하였다.

게 그려서 달을 드러내는 비법이다(所謂畫家烘雲托月之秘法)” 등 그림에 빗댄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김성탄의 평점본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귀명의 필사본 문집에 김성탄의 <수호전구서>가 필사되어 있는 등³³⁾ 18세기 전반에도 김성탄 평점본의 유입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김성탄 평점본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18세기 중반 이후이다. 그리고 이 시기 김성탄 평점본에 대한 경화사족의 반응은 당대의 소품문 및 인경소설의 유행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대부가의 소설 향유 양상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대부들은 지방에 근거를 둔 사대부에 비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신간 소설을 접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우선 서울 지역에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책을 많이 소유한 장서가 있었다. 유만주는 “한성에 있는 사대부가의 소장 도서들을 보면 수 만권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없는 것이 거의 없다(議括閩漢城士大夫家所藏圖籍, 則當不下鍬萬卷, 幾無不備³⁴⁾”고 하였다. 그리고 이덕무가 『사소절』에서 책을 빌릴 때의 예의범절에 대해 서술한 것을 보면,³⁵⁾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책을 빌려보는 일은 흔히 있었던 듯하다. 수만 권을 책을 소유한 장서가 많았던 서울지역 사대부들은 새로 유입되는 중국소설을 구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한 당시 서울지역에는 사대부가를 돌아다니며 책을 파는 도서중개상들이 많았다. 이들은 冊僮 혹은 書僮라고 불렸는데, 『영조실록』에는 “책패들이 도성이 가득하였다(冊僮滿於都中)”³⁶⁾라고 하였으며, 붙은서적으로 지목된 『명기집략』을 유통시키다가 처벌받은 책패들이 1백여 명이 넘었다고 하였다. 유만주의 『흙영』에는 “저녁 무렵 서패가 『수호외서』와 『행』, 『두』, 『일편』, 『쾌』, 『소』라는 소설 5종을 보여주었다”³⁷⁾라는 기록이 있다. 『수호외서』

33) 김영진, 앞 논문, 47면.

34) 최자경, 앞 책, 45면에서 재인용.

35) “凡借人書籍, 主人若好古, 其謬處當校正, 別書小紙, 標其旁. 不可妄爲塗抹亂書, 若主人吝而不好古, 其將奈何.”; “借人書帙, 既讀, 當更拂塵, 整其次第, 襮裝還之. 借法書, 臨摹, 較他書易爲澆汚, 加意護惜, 可也.”

36) 『승정원일기』 인터넷사이트(<http://sjw.history.go.kr/>).

37) 최자경, 앞 책, 47면에서 재인용.

는 <수호지>의 속편이고 『행』은 『행화천』, 『쾌』는 『쾌심편』을 뜻하는데 중국의 재자가인 소설에 속하고, 나머지는 화본소설들이다. 유만주와 같은 경화사족들은 책패를 통해서 새로 수입된 중국소설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서가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책패들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당시 서울지역 사대부들과 지방의 사대부들 간 문화적 차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유만주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국의 신간 소설은 책패 등을 통해 서울 지역 사대부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기 새로 들어온 인정소설이나 김성탄 평점본 등의 독서물은 서울지역 사대부들에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한편, 경화사족층 여성들이 읽었던 중국소설은 남성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남성들과 달리 한문과 백화를 학습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한글로 번역된 중국소설을 읽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옥원재합기연> 권14와 권15의 표지 안쪽에 적혀 있는 소설 목록은 18세기 후반 경화사족 여성들의 취향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이다.³⁸⁾ <옥원재합기연>은 온양 정씨가 1790년 경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온양 정씨는 정치적으로 소론 계열에 속하는 전주 이씨 덕천군파 李永淳의 부인이며, <옥원재합기연>은 온양 정씨를 중심으로 한 이 집안 여성들이 필사하였다.³⁹⁾

38) 심경호는 <옥원재합기연>을 필사한 온양 정씨의 친정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가문이지만, 시택인 李永淳의 집안은 정조 연간에 관료에 오르기 시작한 부흥하는 사대부가이며, “정동서정방”의 기록으로 보아 필사 당시 서울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통권 38호, 1990, 185-186면.)

39) 심경호, 앞 논문 참조.

권14

명행록, 비시명감, 완월, 옥원제합, 십봉괴연, 신옥괴린, 뉴효공, 뉴시삼대록, 니시세대록, 현봉쌍의록, 벽허담관제연록, 옥환괴봉, 옥닌몽, 현씨낭옹, 명주괴봉, 하각노별록, 임시삼대록, 소현성녹, 손방연의, 쌍닐옥소봉, 도앵행, 취미삼선록, 취해록, 녀와선

권15

개벽연의, 타녹연의(탁록연의), 서유연의, 넬국지, 초한연의, 동한연의, 당진연의, 삼국지, 남송연의, 북송연의, 오대도사연의, 남계연의, 소현성녹, 옥소기봉, 석등옥, 소시명행록, 뉴시삼대록, 님하딩문녹, 옥인몽, 서유기, 툉의슈호지, 성탄슈호지, 구운몽, 남정기

(*밑줄은 중국소설)

권14의 표지 이면에는 모두 24종의 소설 이름이 적혀 있는데, 대체로 한 집안의 구성원들 간의 혼인과 출세 등을 다룬 우리나라의 장편소설들이며 몇 십 권에 이르는 대하소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권15에는 총 24종 가운데 중국소설의 번역으로 확인되는 것이 15종이고, 7종은 우리나라의 장편소설이다. 이처럼 위 목록에 있는 소설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소설이며, 15종의 번역소설의 대부분이 연의소설류라는 점에서 사대부 남성들의 소설 목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위 목록에 비슷한 시기의 남성들이 즐겨 읽었던 인정소설이 단 한 종도 보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듯하다. 먼저 번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가 생각할 수 있다. 유만주 등 사대부 남성들은 인정소설을 읽으면서 문장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였다. 그런데 한문 문장이 번역되면 원본의 문장미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글로 소설을 읽는 여성들이 인정소설의 문장미를 음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인정소설의 상당수는 음란한 내용이 들어 있기에 번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정소설 중에서 재자가인소설의 번역본이 널리 읽히지 않았던 것은 번역의 문제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호구전>이나 <평산

냉연>, <옥교리> 등에는 음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미 18세기 초 이전에 번역되었다. 그런데도 <옥원재합기연>의 소설목록에 재자가인 소설이 한 종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재자가인 소설을 번역한 필사본도 그리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호구전>과 <평산냉연>은 낙선재에 소장되어 있던 번역본만이 1종이 전해질 뿐이며, <옥교리>는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낙질본이 있고 완질 번역본은 일본 동경대에만 전한다.⁴⁰⁾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사대부 여성들에게 번역된 중국의 재자가인 소설은 널리 읽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자가인 소설은 남녀의 혼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한글장편소설의 내용과도 친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자가인 소설이 여성들 간에 적극적으로 향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은 <옥원재합기연>의 한글소설 목록에서 우리나라 창작소설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남녀의 혼사과정을 다룬 이야기를 원하는 여성 독자들은 굳이 재자가인 소설의 번역본을 읽기보다는 우리나라 한글소설을 선호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문에 익숙한 사대부 남성들은 우리나라 한문소설보다는 중국소설을 즐겨 읽었다. 이들은 새로운 읽을거리가 필요하면 신간 중국소설을 찾았다. 반면에 여성들은 중국소설의 번역이 아닌 창작을 통해서 새로운 읽을 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14의 안표지에 적힌 소설들은 <소현성록>을 제외하면 대체로 18세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18세기 들어서서 이전 보다 많은 한글소설이 창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옥원재합기연> 권15의 목록의 중국 번역 소설 15종 중에서 연의소설은 12종이나 된다. 이처럼 번역소설 중에서 연의소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재자가인 소설이 우리나라의 창작소설로 대체되었던 것과 달리 연의소설은 창작으로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당시 사대부 남성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연의

40) 정병설, 「<옥교리>와 동아시아 어문교류」(박재연·정병설 교수 『옥교리』,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3.)

소설을 비판했지만,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연의소설이 교양의 일부로 권장되었다. 閔翼洙(1690-1742)의 어머니는 “역대 연의소설은 또한 마땅히 한 두 차례 반복해서 읽어서 대략 과거 치란과 흥망의 자취를 알아야 한다(至於歷代演義之類, 亦當一再繙閱, 略知前世治亂興亡之跡)”⁴¹⁾라고 하였고, 洪麟漢(1722-1766)의 부인 평산 신씨(1723-1763)는 어린 시절 <삼국지>를 읽으며 외할머니에게서 글 읽는 법을 배웠다.⁴²⁾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연의소설이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권장되는 교양서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대부가 여성들이 읽은 중국소설은 연의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3. 상품화된 소설의 향유 여부

大谷森繁은 소설 향유에 있어서 18세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세책과 같은 “소설책의 상품화 현상”을 꼽았다.⁴³⁾ 19세기 말 일기기는 하지만, 모리스 쿠랑은 세책이 서울지역에만 존재하였다고 하였다.⁴⁴⁾ 이 점에서 세책 소설의 향유는 서울지역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세책 관련 자료들은 대개가 19세기 후반 이후의 기록들이어서 18세기 세책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18세기 세책문화에 대한 자료는 大谷森繁이 근거로 들었던 蔡濟恭(1720-1799)이 1751년에 쓴 <女四書序>⁴⁵⁾와 이덕무가 1775년에 쓴

41) 김준형, 「18세기 도시의 발달과 소설 향유의 면모」, 『고소설연구』 26, 고소설학회, 2008, 101면에서 재인용.

42) <선부인언행별록>, 『선부인가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43) 大谷森繁, 『조선 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75면.

44) “이런 종류의 장사가 서울에 예전에는 많았으나 점점 희귀해진다고 몇몇 한국 사람들이 알려 주었다. 또한 나는 지방에, 심지어 松都·大邱·平壤 같은 대도시에서조차 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 직업은 거의 별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명예로운 일로 생각되어 궁색해진 하층 양반들이 자진해서 하는 일이다.” (모리스 쿠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2005.)

45) “근래 부녀자들이 다투어 일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오직 소설만을 숭상하여 소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서 천백여 종에 달한다. 왜가에서 이것을 깨끗이 베껴서 빌려주고 값을 받아 이득을 챙기는데, 식견 없는 부녀자들이 혹은 비녀와 팔찌를 팔고 혹은 돈을 빌려서 다투

『士小節』 <婦儀>⁴⁶⁾ 뿐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1751년에 세책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경제력 있는 집안의 여성들이 이용했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경화사족의 여성들은 세책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을까? 일단 체제공과 이덕무의 발언만 본다면 당시 서울지역 여성들 중 상당수가 세책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세책가의 주 이용고객이 경화사족층 여성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정황상 경화사족 여성들이 세책을 이용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사족층 여성들이 소설을 즐겨 읽었다는 사실은 이미 16·17세기 자료에서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17세기 말 18세기 초에는 소설이 성행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세책의 등장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새로운 소설에 대한 수요이다. 18세기 이전 기록을 검토해 보면 소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만한 공급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 듯하다. 김만중이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古史異書’를 구해드리고 밤낮으로 어머니 옆에서 패관소설을 읽어드렸다는 기록이나,⁴⁸⁾ 조성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새로운 읽을거리를 빌려다 읽었다는 기록⁴⁹⁾에서 소설을 읽고자 하는 욕구에 비해 새로운 소설책을 쉽게 수

어 빌려보며 이것으로 긴 날을 보낸다.(竊觀近世閨閣之競以爲能事者, 惟稗說是崇, 日加月增, 千百其種, 儉家以是淨寫, 凡有借覽, 輒收其直以爲利, 婦女無見識, 或賣釵釧, 或求債銅, 爭相貫來, 以消永日)”

46) “언번전기를 즐겨 보아선 안 된다. 집안일을 버려두고 여공을 게을리 하며 돈을 주고 빌리기까지 하여 침혹함이 그치지 않아 가산을 기울인 자도 있다(諺翻傳奇, 不可耽看, 廢置家務, 怠棄女紅, 至於與錢而貫之, 沈惑不已, 傾家產者有之)”

47) 낙서거사가 1531년 쓴 <오륜전전> 서문에는 부녀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오륜전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쇄미록』에는 오희문이 딸의 요청으로 『초한연의』를 번역하였다는 기록에서 17세기 이전에 이미 여성들이 한글소설을 읽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인선 왕후가 1652년에서 1674년 사이로 추정되는 시기에 숙명공주에게 보낸 연간에 <녹의인전>, <하북이장군전>, <수호전> 등의 소설 제목이 보이고 있으며, 창계 임영이 여덟 살 되던 해인 1656년에 누이들에게 ‘女史古談’을 읽어달라고 하였다는 기록 등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미 경화사족 여성들 사이에서 언문소설을 읽는 일이 일상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자료원, 1988과 윤세순과 정길수의 앞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48) “以大夫人之好書, 求聚古史異書, 以及稗官小說, 日夜談說左右, 以資一笑”(〈西浦先生府君行狀〉)

49) “太夫人聰明睿哲, 於古今史籍傳奇, 無不博聞慣識, 晚又好臥聽小說, 以爲止睡遣悶之資, 而常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조태역의 어머니가 <서주연의>를 ‘好古家’에서 겨우 구하였는데 여항의 여인이 어머니에게 이를 간청하여 빌려갔고, 또 조태역의 아내가 친척부인에게 책을 구하는 것을 보면 이 시기까지 원하는 소설책은 주로 인맥을 이용해서 구했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이러한 사정은 18세기 초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자료는 오광운(1689-1745)이 쓴 누이동생의 행장인데, 당시 소설의 유행에 대한 언급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나라의 풍속에 부녀자들 사이에서 언문으로 번역한 소설류를 전해 보는 일이 성했다. 누이는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 막힘이 없었지만, 예의에 어긋나는 대목을 보면 문득 책을 덮고 눈길을 주지 않았다.(國俗譯編稗說, 簪珥間傳觀甚盛, 妹自幼小, 沛然讀無礙, 遇違禮者, 輒掩卷不寓目)

吳光運, 『藥山漫稿』 <亡妹小娘子行狀>

오광운의 누이동생은 1697년에 태어나서 1707년에 죽었으므로 부녀자들이 언문소설을 읽는 일이 성했다는 위 내용은 18세기 초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傳觀’은 서로 돌려보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태역의 부인이 친척집에서 소설책을 빌려보는 상황과 유사하다. 부녀자들이 소설을 보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는 것을 보면 소설책에 대한 수요는 17세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소설을 빌려보는 것 외에 소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수단은 없었던 듯하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소설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세책이 등장하였다고 보았지만, 세책의 등장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추정하였다. 大谷森繁은 체제공과 이덕무의 증언이 나타난 즈음을 등장시기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⁵¹⁾ 정병설은 18세기 전반에 소설이 성

患無以繼之, 府君每聞人家有未見之書, 必竭力求之, 得之而後已, 又自依演古說, 搆出數冊以進”(〈拙修齋行狀〉, 『졸수재집』)

50) 조태역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大谷森繁이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大谷森繁은 조태역의 어머니가 <서주연의>를 필사하던 시기를 1696년에서 1698년 사이로 추정하였다.(大谷森繁, 앞 책, 63면.)

행했다는 기록⁵²⁾은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유통방식이 이 시기에 나타났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⁵³⁾ 한편, 이민희는 세책업은 소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18세기에 기존의 서적 중개상 책패가 영업방식을 바꾸면서 나타났다고 보았다.⁵⁴⁾

세책에서 취급하던 소설책의 부류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大谷森繁은 세책의 출현이 기존 소설의 대량 필사와 새로운 소설 창작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면서도 세책을 통해 읽힌 책이 주로 중국소설의 번역과 번안 작품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⁵⁵⁾ 세책가에서 새로운 읽을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소설의 창작보다는 중국소설의 번역, 번안을 택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정병설은 18세기 전반에 다양하고도 새로운 소설이 대량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세책가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 시기 세책을 특징짓는 소설은 <소현성록>이나 <한씨삼대록>과 같은 장편한글 소설이라고 보았다.⁵⁶⁾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만으로는 세책가에서 대여하던 새로운 소설이 주로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세책가가 당시 경화사족 여성들의 수요를 충족하였던가 하는 점도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大谷森繁이 주장한 대로 세책가에서 만든 책이 중국소설의 번역과 번안이었다면 여성들이 소설에 빠져가산을 탕진한다는 이덕무나 체제공의 비판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 당시 사대부가 여성들이 읽던 중국소설의 번역 및 번안물의 대부분은 연의소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에게 읽히던 번역된 연의소설은 교양서의 위치에 있었으며, 여성들이 흥미를 느끼고 즐겨 읽었던 소설은 우리나라 장편대하소설이었다. 그러므로 세책가에서 여성독자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소설의 번역보

51) 大谷森繁, 앞 책, 80면.

52) 정병설이 근거로 든 것은 최규서가 1731년에 죽은 부인의 행장에서 “時俗婦女, 多崇雜技小說, 而君獨不喜”라고 한 기록과 1733년에 죽은 이부인(민진후의 계실)의 행록에 손녀들에게 “혼인, 부귀, 신선, 귀신 등의 패설잡기”를 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 소설의 성장과 유통』,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2005, 273면)

53) 정병설, 같은 논문, 273면.

54)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 관계 연구』, 역락, 2007, 124-130면.

55) 大谷森繁, 81-83면.

56)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98면.

다는 창작소설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본다.

그런데 상품으로서 새로운 소설을 창작하다 보면 기존과 비슷한 패턴의 아류작을 양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글 소설 중에는 유사한 서사구조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세책의 주 고객층이 과연 사대부가 여성들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옥원재합기연>을 필사하던 전주 이씨가 여성들이 과연 세책을 자주 이용하였을까? 이들은 여전히 필사를 통해서 소설을 향유하고 있지 않은가? 당대 사대부가에서 소설과 소설필사가 지속적으로 교양과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대부 집안에서는 웬만한 한글소설책을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광사 남매의 경우처럼 새로운 소설 창작이 집안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면서,⁵⁷⁾ 사대부가 여성이 작가로 거론되기도 한다. <완월회맹연>을 안검제의 어머니 전주 이씨가 창작했다는 『송남잡지』의 기록이나,⁵⁸⁾ <옥원재합기연>의 작자에 대해서, “옥원을 지은 재주는 문식과 총명이 진실노 규등의 탐물하야 (...)”⁵⁹⁾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사대부가 여성들이 소설 창작에 관여하였던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에 사대부가 여성의 소설 향유가 세책보다는 집안을 중심으로 한 자급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세책을 주로 이용하던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세책가를 이용하였을 여성들은 자급을 통해서 소설책을 얻기 어려웠기에 상업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소설책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세책가의 주 고객은 사대부가 여성들이 아니라 이들보다 교양수준은 낮되 경제력을 갖춘 중인 이하 계층의 여성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현재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의문을 풀 길이 없다.

57) 이광사 남매의 소설 창작에 대해서는 이유원의 『입하필기』에 기록되어 있다.

58) “又翫月, 安兼濟母所著, 欲流入宮禁, 廣聲譽也.”(『송남잡지』, 아세아문화사, 1986)

59) 심경호, 앞 논문, 177면.

4. 소설 향유와 창작의 관계

18세기 경화사족층 남성들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소설을 읽었다. 그러면 이들이 혹 창작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궁금해진다. 윤덕희나 유만주처럼 소설의 열렬한 독자라면 소설 창작에도 관심을 둘 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8세기 경화사족 중에 소설을 창작한 작자로 밝혀진 인물은 거의 없다. 이 시기에는 한문으로 소설을 창작한 예가 거의 없었던 듯하다. 야담계 한문단편을 포함시킨다면 보다 풍부한 예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들 한문단편을 제외하고 나면 이 시기에 창작된 소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⁶⁰⁾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중국소설의 향유가 새로운 한문소설 창작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는 중국의 공안파와 소품문의 영향으로 개성적이고 참신한 문학 작품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구적인 서사물인 소설의 창작이 전후 시기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설과 같은 허구적인 서사가 상대적으로 당시 경화사족 남성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구운몽>이나 <남정기> 등에서 완성된 우리나라 소설의 형식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으로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경화사족 남성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을 배경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는 사실 중국소설과 구별되기 힘들며 이러한 읽을거리에 대한 수요는 중국소설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 또한 李麟祥(1710-1760)이 청나라 희곡 <桃花扇>을 읽고 쓴 <桃花扇識>에서 “아녀자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으며 명나라 말기의 일을 가히 살펴볼 수 있다(供兒女笑噓, 而明季事有可攷)”⁶¹⁾고 한 것을 보면 중국 소설과 희곡이 오락물인 동시에 중국의 풍속과 세태를 알 수 있는 정보원

60) 이정작의 <옥린몽> 밖에는 없는 듯한데, 그나마 <옥린몽>은 한문으로 창작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창작시기가 그가 관직에 나가기 전인 1716년 이전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8세기보다는 <구운몽>과 <사씨남정기>가 창작된 17세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725년 즉위한 영조가 1728년 이인좌의 반란을 계기로 탕평책을 쓰기 전까지의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17세기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이정작과 <옥린몽>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호석, 『옥린몽의 작가와 작품세계』, 다운샘, 2004 참조)

61) 『凌壺集』 권4.

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소설은 중국의 세태도, 우리나라의 세태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심 밖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인정세태가 반영된 서사물로는 야담과 야사가 있었는데, 당시 사대부 남성들은 야담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무렵 편찬된 야담집이 적지 않고, 또 『흙영』에는 ‘夜話’에 대해 언급하거나 옮겨 적거나 야담과 야사류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많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만주와 같은 경화사족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소설보다는 야담이나 야사를 선호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전후로 사대부 남성의 소설 창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우함 속에서 소설을 지었다. 이정작은 궁핍한 시절에 <옥린몽>을 창작하였고, 옥소 권섭은 신임옥사로 인해 아들을 잃어 상심하던 시기에 국문소설을 번역한 바 있다.⁶²⁾ 19세기에 와서 한문소설을 창작한 근기지역 사대부들도 모두 불우한 처지에 있었다.⁶³⁾ 이들이 소설을 창작한 이유는 소설의 허구가 현실의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소설에 관심을 갖고 창작까지 하는 경우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계층에서 찾을 수 있다. 가상을 통해 허구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결핍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세기 경화사족층의 소설 창작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소설 창작을 자극할 만한 결핍된 상황이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8세기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사대부들은 소설책을 구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 소설은 이들에게 재미있는 읽을거리였고 오락물이었다. 申喲(1696-1766)이 손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이나 읽고 있는 손자를 질책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면한⁶⁴⁾ 데서도 이러한 상황을

62) 이에 대해서는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번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1, 고소설학회, 2001 참조.

63)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3 참조.

64) “내가 비록 멀리 나와 있지만, 네 아버지가 틀림없이 날마다 편지를 할 것이고 네 할머니가 틀림없이 부지런히 책을 읽으라고 권할 것이니 너는 머리를 파묻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느냐? 내가 집에 있을 때 보니 네가 마을 사람과 근처 아이들을 모아서 시시덕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더구나. 또 아녀자들의 소설 듣는 것을 좋아하여 그 해악을 깨닫

집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 경화사족은 주로 소설의 소비자였으며, 창작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에게 소설은 그저 가벼운 독서물일 뿐이었던 것이다. 일례로 이상황과 김조순은 대궐 숙직 중에 소설을 읽는 등 소설에 심취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조의 명령에 따라 바로 반성문을 지어 바쳤다. 소설에 대해 심각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⁶⁵⁾ 소설을 창작한 사대부들은 대체로 현실에 대한 결핍 상황을 체험하였다. 소설은 이러한 결핍을 충족시키는 허구적 서사였다. 그런데 경화사족은 이러한 결핍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 일시적으로 서울을 떠나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다소 궁핍하다고 해도 경화사족은 상대적으로 출세의 기회가 많았다. 출세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대부들은 소설의 허구를 통해 자신을 성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18세기 경화사족이 소설의 소비자였으면서 창작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한글장편대하소설은 다수 창작되었고, 작자 중 상당수는 경화사족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화사족 남성들은 중국소설을 통해 읽을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했지만, 여성들은 새로운 창작소설을 통해 읽을거리를 구했기에, 18세기에는 한글대하장편소설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가 여성들이 읽었던 장편의 한글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중국보다는 조선에서의 삶에 보다 가깝다. 이들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집안 내에 부자갈등, 부부갈등, 형제갈등, 여러 부인간의 갈등 등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상황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소설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등장인물의 상황에 공감하거나 분노하였다. 여성들

지 못하더구나.(余雖出遠, 汝父日必授書, 汝祖母亦必勤苦勸讀, 汝果屈首劇讀, 不廢程課也耶, 余在家, 見汝好聚村客隣童, 閒漫打話, 消日失時者居多, 又嗜聽婦女稗書小說, 不悟其害事”(『直菴集』〈寄素孫〉)

65) 김경미는 이상황이 「힐패」에서 소설을 배척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였다.(김경미, 「이상황의 소설의식-배척과 옹호의 길항」, 『한국고전연구』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이런 점에서 이상황이 정조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자송문으로 「힐패」를 지어 바친 점으로 볼 때, 이상황은 소설에 대해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번역된 중국소설보다 우리나라의 창작소설을 선호했던 이유는 당대 여성들의 삶과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장편 한글소설들은 작가를 알 수 없다. 한글 대하소설의 말미에는 소설의 내용이 개인의 ‘창작’이 아닌 ‘사실’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장편 한글소설이 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등 삶과 밀착된 내용이다 보니, 여성독자들은 소설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한글텍스트는 한문과는 달리 문식성이 크게 의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글소설은 개인의 창작물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장편의 한글소설은 구비문학과 유사한 속성을 지녔다. 구비설화의 구연자가 이야기를 창작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장편의 한글소설은 개인 창작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지 않는다. 향유방식의 측면에서도 구비문학과 유사성을 보인다. 한글소설은 때로 구송되기도 하여 ‘이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⁶⁶⁾ 또한 한글소설은 주로 필사의 형태로 향유되었는데, 필사과정의 변이가 적은 한문소설과 달리, 한글소설은 변이의 정도가 심하고 빈번하다. 이는 작자와 서술자, 필사자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았던 당대 한글필사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이러한 한글소설의 향유문화는 화자와 청자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았던 이야기판의 속성과 유사하다. 그만큼 한글소설에서는 작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대다수의 한글장편소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6) 일례로 “남정귀 등 글을 외오시미 허 글즈도 그릇 아니 허샤”(『정부인신창맹씨가장』, 『영세보장』, 정양완 역주, 태학사, 1998, 297면)을 들 수 있다.

67)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참조.

5. 결론

이상으로 18세기 서울에 거주하는 사대부 남성과 여성의 소설 향유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8세기 경화사족 남성들은 중국소설을 즐겨 읽었으며, 이전에 비해 인정소설과 김성탄 평점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정소설이나 김성탄 평점본이 다른 소설보다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소품문에 대한 당대의 취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경화사족 남성들은 우리나라 소설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서사물로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영된 야담을 즐겼을 뿐이다. 17세기 이래 우리나라 소설은 관습적으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소설과 우리나라 창작소설은 외형상 뚜렷이 구별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경화사족 남성들은 중국소설을 애독하였지만, 18세기 경화사족 남성들은 창작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허구적 서사물을 창작할 만큼 결핍된 상황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글로 소설을 향유하던 여성의 경우에는 중국소설보다는 우리나라 소설을 선호하였다. 이들이 주로 읽었던 번역소설은 연의소설류인데, 연의소설류는 흥미보다는 교양의 차원에서 권장되었다. 여성들이 오락물로써 즐겨 읽었던 소설은 한글대하소설류였다. 한글대하소설은 독자와 작자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재생산하였다.

이 점에서 사대부가 여성들을 세책의 주 고객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사대부가 여성들은 필사와 차람, 창작을 통해서 자급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 세책가의 주 고객은 소설책의 새로운 독자층으로 떠오른 중인 이하의 계층에 속한 여성들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당대 세책가에 대해 추정하기에는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다. 앞으로 이 부분은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선부인가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송남잡지』, 아세아문화사, 1986.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 김경미, 「이상황의 소설의식-배척과 옹호의 길항」, 『한국고전연구』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57-180면.
- _____, 「음사소설의 수용과 19세기 한문소설의 변화」,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331-358면.
-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칭 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4, 25-26면 참조.
- 김준형, 「18세기 도시의 발달과 소설 향유의 면모」, 『고소설연구』 26, 고소설학회, 2008, 91-118면.
- 류탁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 모리스 쿠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2005.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편, 집문당, 1995.
- 박재연, 「완산 이씨 『중국소설회모본』에 대하여」, 『석헌정규복박사 고회기념논총』, 1996.
- _____, 「윤덕희의 소설경람자」, 『문헌과 해석』 19, 문헌과해석사, 2002 여름, 207-216면.
-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통권 38호, 1990, 169-188면.
-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 윤세순,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유입과 향유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25, 민족문화사학회, 2004, 134-161면.
- _____, 「17세기, 소설류의 유행양상」,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403-434면.
-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증개상과 소설·서적 유통 관계 연구』, 역락, 2007.
-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73-308면.
- 이혜순, 「수호전 판본고」, 『중국학보』 14, 한국중국학회, 1973, 1-24면.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자료원, 1988, 103-176면.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2005.
- 정병설, 「<옥교리>와 동아시아 어문교류」, 『옥교리』(박재연·정병설 교주),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3.
- _____,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중국소설회모본』」, 『문헌과 해석』 47, 2009 여름, 126-135면.
- _____,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2005, 263-297면.
- _____,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 정선희, 「조선후기 문인들의 김성탄 評批本에 대한 독서 담론 연구」, 『동방학지』 129, 연세대 국학자료원, 2005, 305-345면.
- 정양완 역주, 『영세보장』, 태학사, 1998.
- 조관희, 「수호전인론」, 『중어중문학』 9, 한국중어중문학회, 1987, 139-162면.
- 조숙자, 「<第六才子書西廂記>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 최자경, 「유만주의 소설관」, 연세대 석사논문, 2000.
- 최형섭, 「출판문화의 보급과 텍스트, 저자, 독자, 그리고 독서관습」, 『중국소설논총』 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183-207면.
-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1, 고소설학회, 2001, 237-264면.
- _____, 『옥린몽의 작가와 작품세계』, 다운샘, 2004.
- 한 매, 「조선후기 김성탄 문학비평의 수용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 벤저민 엘먼, 양희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 오오키 야스시,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 2007.
- 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75면.

Noble of Seoul in 18th century and Reading novel.

Yi, Ji-young

This study is on the relation between reading novel and noble of Seoul in 18th century.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wo lists of novels. One was written by Yun-Dukhee(尹德熙) and the other by Prince Sado(思悼世子). Also I surveyed the diary of Yu-Manjoo(兪晩柱). These data say that noblemen of Seoul in 18th century enjoyed chinese novels and in the chinese novels the proportion of human nature novels increased in late 18th century.

To trace the reading novels of noblewomen, I analyzed the list of novel in the back of *Okwonjaehapkiyeon*(옥원재합기연), the Korean novel, too. Different from noblemen, noblewomen did not enjoyed Chinese human nature novels, but enjoyed Chinese historical novels, and they preferred for korean novel to translated Chinese novels. Some scholars supposed that in 18th century noblewomen got the novles from rental shop, but I think that the customers of book rental shop were the lower class women, and noblewomen got the novels in their own family.

There was imbalance between reading novel and writing novel of noblemen. They were the enthusiastic novel readers, but they did not have the desire for writing. I supposed it was because of their abundant life. They had the possibility in real life, so had no desire to realize in fiction. On the other hand, women of upper class are thought to be the writer of Korean novel. In the culture of reading Korean novel, the reader was not separated from writer, So the readers could write stories more easily.

Keywords: noble of Seoul(京華士族), Gyunghwasaejok, reading novel, 18th century, human nature novel(人情小說), Chinese novel, book rental shop, the culture of reading korean novel.

접수일자: 2010. 3. 10
심사기간: 2010. 3. 10~2010. 5. 20
게재결정: 2010. 5. 20